
일부지역의 위 장관 조영술에 대한 조사 연구

전북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

김상균, 최창한, 조영기, 이강우, 이우식

목 적 : 앞으로 전문 방사선사 도입으로 더욱 진단 레벨을 향상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 장관 조영술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진단의 정확도 및 한계성, 효용성 등을 알아보고 현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본 조사는 2003년 5월 1일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의료기관의 병원 46개 시설(대학부속병원 2개, 종합병원 8개, 준 종합병원 14개, 일반병의원 19개, 기타 3개)을 임의로 선정하고 그곳에서 위 장관 조영술 담당 실무자에게 전화 및 직접 방문과 질문 및 답변을 받고 촬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각기 필름매수와 촬영 자세 그리고 촬영 기술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.

결 과 : 위장관 조영술검사시 46개 의료기관의 필름매수는 평균 5매 65.2%(30/46)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. 전면촬영의 촬영체위는 입위충만상이 39.4%(50/127), 양와위 2중조영 정면 30%(38/127), 양와위 2중조영 두저위 제2사위 7.9%(10/127), 양와위 2중조영 제1사위와 복와위 충만상이 각각 7%(9/127), 전면 촬영 기술은 양와위 정면 2중조영법 48.8%(62/127), 입이 충만법 33%(42/127), 이중압박법 6.3%(8/127), 바륨 충만상과 바륨 흐름 묘출법 각각 4.6%(6/127), 복와위패드법 2.7%(3/127)로 나타났다.

2분할 촬영시 촬영체위 양와위 2중조영법 제1사위와 두저위 제2사위가 동일하게 20.3%(28/138), 우측와위 16.0%(22/138), 양와위 2중조영 제2사위상 13.0%(18/138), 양와위 2중조영 정면 10.9%(15/138), 복와위 충만상 10.1%(14/138), 2분할 촬영기술은 이중조영법 86.2%(119/138), 바륨 충만법 7.3%(10/138), 바륨 흐름 묘출법 2.2%(3/138), 점막법 2.2%(3/138)로 나타났다.

4분할 촬영시 촬영체위 양와위 2중조영 제1사위 27.1%(28/104), 양와위 2중조영 두저위 제2사위 26%(27/104), 우측와위 11.5%(12/104), 양와위 2중조영 정면 11.5%(12/104), 양와위 2중조영 제2사위 7.7%(8/104), 복와위 충만상 6.7%(7/104), 입위충만상 2.9%(3/104), 4분할 촬영기술은 이중조영기법 72.1%(75/104), 바륨 흐름 묘출법 18.4%(19/104), 바륨 충만법 3.8%(4/104), 이중조영법+압박법이 2.9%(3/104), 복와위 패드법 1.9%(2/104), 점막법 0.9%(1/104)로 나타났다.

결론 및 고찰 : 위 장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필름 수, 촬영체위, 촬영기술이 위 전역을 묘사시키는 표준촬영을 구사할 방법과 이를 개선하여 새로운 촬영방식을 도입하고, 다양한 촬영기술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,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지역 뿐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확대 개선하면 촬영자의 위 장관 조영술의 정도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.